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8일 목요일 음 7월 8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무덥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26~27℃, 낮 최고 기온은 31~32℃로 예상된다. 자외선지수는 매우 높음이며 식중독지수 또한 위험 단계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0%
20%	성산	20%
20%	고산	0%
20%	서귀포	20%

해돋이 05:51 해질 19:28	달뜨기 13:26
물때 만조 04:01 18:04	간조 11:00 23:4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6/33℃
모레	구름 많음	26/3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월드뉴스

로마 ‘스페인 계단’ 샅기만 해도 벌금

문화 유산 훼손 심각 판단

이탈리아 로마에는 전 세계인의 관광 명소, 약 300년 역사의 스페인 계단이 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그곳이다. 135개로 이뤄진 스페인 계단은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자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6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경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 계단과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최근 관광객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칙에 따라 계단에 앉거나 누는 행위,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는 행위, 계단 아래 바르카치아 분수에 몸을 담그고 물을 마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정도에 따라 160~400유로(약 21만~54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마의 스페인 계단 전경.

실제 이날 스페인 계단에서는 앉아 쉬려는 관광객들을 제지하려는 경찰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로마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으로 로마의 대표적 문화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대체로 관광객들은 과도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한편에선 문화 유산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몇 년 전에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유구국’이라는 독립 국가였던 오키나와는 17세기 초 현재 가고시마현의 반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19세기 후반에 모든 자치권을 빼앗겨 일본국으로 복속된 곳이었다. 지금은 해군기지가 있고, 태평양 전쟁 당시 전초기지였으며, 일본 본토와는 다른 섬 문화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제주와 너무나도 닮은꼴을 느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키나와 민속촌인 류쿠무라에서 오

언어가 부여하는 의미

키나와 언어로 진행된 민속공연을 본 경험이었다. 1940년대 태평양전쟁에 미친 듯이 열을 올리던 일본이 지역어를 금지시킨 이후로 오키나와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게 되자 몇몇 구술가능자를 중심으로 재현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 공연을 보면서 마치 소설가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라는 단편 소설에서 등장하는 ‘소수 언어 박물관’이 생각났다. 소수 언어 박물관은 1000여 개의 멸종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구역인 박물관에서 영혼 없는 언어전시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 소설이 생각난 이유는 오키나와 역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마지막 언어를 공연이란 매개를 통해 구술하는 것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히 구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파생되는 문화를 언어를 통해 형상화시키고 표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즉 문화 기록의 핵심이 언어인 셈이다. 유엔에서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갖고 올해를 ‘세계 토착어의 해’로 지정한 이유도 한 언어가 없어짐으로써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기억, 표현을 보존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소멸의미를 말해준다는데 있다. 결국 언어의 보전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인 것이다. 어찌 보면 다양한 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의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사라지고 생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장구한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토착어가 근현대에 와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다.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중에 하

나인 제주어 역시 수 천년간 매일 숨쉬듯 사용돼 왔지만 고도의 정보화, 표준화교육 등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언어로 너무 많이 희석되어 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주인의 삶이 담겨있는 제주어의 원형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부류가 고령의 어르신들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를 조사하고, 지역어 지도를 만들고, 언어문화 행사를 한들 우리 삶과 동반하지 않으면 소수 언어 박물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제주어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탐라를 거쳐 제주를 형성해 온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날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자는데 있는 것이다. 단순히 소수 언어 박물관에서 보여주듯 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언어를 구사하는 마지막 화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다.

열린마당

음주운전은 가족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양재형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음주운전 현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90%, 인명피해도 93.8%가 감소하는 등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1239건으로 전년 동기 2680건보다 53.7%가 감소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때의 눈처럼 감시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한 방법일 수 있다. 음주운전 신고는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를 운전할 하게 되거나,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가 늦어져 본인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술 자리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함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부득이 차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동석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석자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살펴보는 배려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주말과 심야시간에는 짧은 시간 장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잔디깎이 : 동력(엔진·전기), 수동, 탑승식
예초기 : 견착식, 배부식(2단 분리형·일체형)
체인톱, 수벽전정기, 분무기, 양수기, 소형엔진, 파쇄기

Green Clean!

정원산림관리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정비

해록기계

☎ 722-3414~5
757-0165

이도동주민센터 KAL호텔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혈 35(일도2동) 삼성혈 동쪽 다라골 (단독가전사(물품)점)

세상의 모든 돌 이야기

수입대리석, 화강석, 라임스톤 판매 및 수입대행

베트남 현무암

완제품 직수입

조경건축토목용 경계석

판석, 부정형난석 등

마블인은 30년동안 이태리, 스페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대리석 광산들과 직거래하며 자체 광산을 개발, 수입, 가공, 판매하는 수입식 전문 회사입니다.

현무암 경계석	
120×150×500	6,500/개당
150×150×500	7,500/개당
170×200×500	12,000/개당
200×250×500	15,000/개당
현무암 판석	
600×900×30	21,000/㎡
600×1200×30	21,500/㎡

마블인

하치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2
공 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복촌리 952

T. 064)713-6866 / 010-3873-7650
E-mail : marble2017@naver.com / www.marblein.co.kr